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윤인진** · 임창규** · 정재영**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직업계층과 국가별로 자녀 양육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에서도 직업계층과 국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방식은 달리 특별히 어느 직업계층에 속하는 어머니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자녀를 민주적 또는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자녀 사회화, 자녀양육, 부모-자녀관계, 직업계층

* 본 논문은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 주최로 2007년 4월 20일에 개최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준비하였다. 유익한 논평을 해 준 김신영 박사와 『한국청소년연구』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I. 문제제기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육기회 역시 확대되어 왔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의 평균학력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다. 평균 교육년수는 1975년 6.6년이었지만, 1995년에는 10.3년, 2000년에는 10.6년, 2005년에는 11.2년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고등학생 졸업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은 71.1%이고, 전문대학과 교육대학까지 합치면 82%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높다(통계청, 2006).

하지만 평균 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상수, 2001; 방하남·김기현, 2001; 2002; 2003; 2004; 남춘호, 2004;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소득을 얻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 권력과 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하기에(장상수, 2001: 23),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과 자원을 쏟기 마련임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부모의 직업위세나 소득 혹은 학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교육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현행 교육체계에서 소득이 높은 부모는 사교육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경쟁에 앞선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위세나 학력 등을 독립변인으로 내세울 때도 별다른 이론적 설명 없이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계층별 차이를 소득과 같은 물질적 조건의 차이로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과 중산층간에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 외에도 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행동, 직업가치관, 학업성취 동기 등 사회심리적 현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취업, 그리고 직업선택과 같은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사회계층과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 학업과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여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회의식, 자아정체감과 같은 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 의지,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 직업가치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부모의 사회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직업 계층이 부모의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직업계층 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직업계층별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로 조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귀속적 신분, 정치권력 등에 의해 결정되던 전(前) 산업사회와는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개인이 성취한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방하남·김기현, 2001: 2-3). 직업위계에 따라 달리 보상되는 수입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생활기회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직업은 계층구조의 가장 강력한 단일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유홍준·김월화, 2002: 37).

그런데 직업은 대부분의 경우 학력을 통해 획득하게 되고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학업성취는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는 ‘학력사회’에서 학업성취는 각종 교육적·사회적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학교 내적 요인(학교의 교육조건, 학급편성, 학급규모, 학교풍토 및 학생문화, 교사의 역할)과 학교 외적 요인(지능,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경근, 1996: 85-88).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1) 가족배경,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효과는 교육기회가 확대되어도 감소하지는 않으며(Mare, 1980, 1981; 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0, 2004), ‘초·중·고·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 단계 속에서 중·후기 단계로 옮겨가도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임은미, 1998; 장상수, 2000; Chang, 2003).

재정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가족환경은 자녀의 지적인 수준과 학업능력의 계발, 행동과 정서, 그리고 가치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인 것이다(Coleman, 1988; Bronfenbrenner, 1989; Kohn, 1959, 1963, 1969). 국내의 연구들 역시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정원식, 1979; 임은미, 1998; 문은식·김중희, 2003),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성취(장상수, 2000, 2004; 김기현, 2004; 남춘호, 2004), 가족의 문화자본과 직업결정과정(전경애, 2001), 어머니의 직업과 직업포부 수준(하경화, 2002) 사이에 밀접한 상관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이수(1997: 6)는 부모의 직업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블루칼라인 경우보다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김영화·김병관(1999: 155)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이 학업성취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왔다고 보고하였다. 김광역(2003)은 고소득직군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은 비소득직 아버지에 비하여 2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7)이 최근 출간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서는 법조인이나 기업체 고위 임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 종사자의 자녀가 단순노무직 등 하위 직종 종사자의 자녀보다 8배 이상 특목고에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부모의 문화자본(학력)과 경제자본(소득)의 차이로 환원하여 학업성취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하남(2004: 49)은 가족의 배경과 학업성취 사이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정서적 연대로서의 가족에 관한 실증적 자료나 연구결과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지적하여 왔다. 위스킨신모형(Wisconsin Model)으로 불리는 사회심리모형에서는 개인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원(부모)이나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들의 관심과 격려, 기대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역할모범(role model) 등 사회심리적 자원 자체가 사회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사회경제적 성취정도는 계층 간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Sewell, Haller, and Portes, 1969; Sewell and

Hauser, 1975; Sewell, Hauser, and Wolf, 1980 (방하남·김기현, 2002: 219)에서 재인용).

정서적 연대로서의 가족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목표의식 형성을 통해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방하남, 2004: 26), 특히 의미 있는 타자들 중 1차적 존재인 부모의 직업과 개인생활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역할모형이 되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Mortimer, 1996). 또한 부모의 자율성 증진행동은 유아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은미, 1998),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의해 창출되어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의 투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의 사회자본(Coleman, 1988)은 국내외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 and Willms, 1996; 김경근, 2000: 36).

다른 연구도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빈곤이 부모의 정신건강과 가족에 위기를 초래하고 양육방식을 변화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u and Plotnick, 2003). 즉,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대하여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구적 발달과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McLoyd(1990; 1998)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빈곤가정은 적절치 못한 수준의 식생활과 주거생활을 경험하고, 위험한 주변환경에 노출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상으로 인해 빈곤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증대되고,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학업에 대한 기대와 개입 또한 줄어든다. 이러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빈곤자녀는 최적의 학구적 발달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낮은 교육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구인회(2003: 9)에서 재인용).

Casanova(2005)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여 및 성공에 대한 기대의 상관도를 비교하였는데 학업성적이 평균보다 낮은 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인은 별 상관성이 없었지만 부모의 관여와 기대수준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가 사회심리적 변인, 예를 들어 부모의 관여수준과 기대,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 등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부모의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Maccoby(1980)는 자녀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연구했는데 어머니는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이후의 자녀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관심과 관여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는 첫 번째 자녀의 문제해결 노력에 더욱 관여하고 그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 강한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이런 압력은 첫 번째 자녀와 어머니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높은 성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녀는 이후의 자녀들보다 SAT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계층별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Duvall과 Kohn이 선도적인 연구를 하였다. Duvall(1946)에 따르면 노동계층의 부모들의 가치관은 “전통적(traditional)”이어서 자녀들이 단정하고 청결하며,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친다고 한다.²⁾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간계층의 부모들은 “발전적(developmental)”이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길 원하며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고 한다. 또한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협동적이며 함께 나누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길 바란다 고 한다. 즉, 노동계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외부의 권위에 순응하길 바라고, 중간계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내적인 역동성(internal dynamics)에 집중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Kohn(1959) 역시 1956-1957년 경험적 분석을 통해 Duvall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동계층의 부모는 순응(obedience)·단정함(neatness)·청결함(cleanliness)을, 중간계층의 부모는 호기심·행복·사려깊음·자기통제(self-control)와 같은 가치를 좀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자계층의 부모는 외부의 금지(proscription)에 순응하는 편이나, 중간계층의 부모는 자기지향적(self-direction)이라는 것이다. 노동자계층의 부모에게는 외현적 행동(外顯的 行動, overt act)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들의 아이는 외부에서 부여된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계층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동기와 감정이 중요하기에 자녀는 그들 스스로를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Kohn은 이러한 사회계층별 차이를 부모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사회계층으로부터 겪은 삶의 경험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다(Kohn, 1959, 1963, 1969, 1976, 1979, 1981; Gecas, 1979).

2) 계층(stratification)과 계급(class)과 이라는 용어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구해근과 홍두승(2001: 28-32)을 따라 계급과 계층을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고 큰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계층별 차이를 부모의 학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학력 외에도 사회계층의 삶의 조건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Kohn(1963: 473)은 노동계층과 중간계층의 가치관 차이를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의 차이에서 찾는다. 직업적 차이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계급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상당부분 결정한다. 중간계층의 직업은 소득의 안정성, 사회적 위세 외에도 노동계층의 직업과 최소한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중간계층의 직업은 대인관계, 이념(ideas), 상징(symbols)을 취급하는 반면, 노동계층의 직업은 사물(things)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간계층의 직업은 보다 더 자율적인데 반해, 노동계층의 직업은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상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놓여있다. 셋째, 중간계층의 직업에서의 성공은 자신의 행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노동계층의 직업은 노동조합과 같은 집합적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중간계층과 노동계층의 직업에서 성공에 유리한 특성의 차이를 묘사할 수 있다. 중간계층직업은 보다 자기지향적 성향을 요구하고 노동계층직업은 대부분 외부권위에 의해 지시된 명확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중간계층의 부모는 주관적이며 복잡한 것을 사고하도록 배운 그들의 능력을 통해 자녀들이 내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과 자세를 강조한다. 또한 중간계층의 소득수준과 소득안정성은 그들의 삶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Kohn, 1963: 475-477).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동일시하고 태도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원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직업발달의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Super, 1957). Perrone(1965)은 7, 8학년의 여학생과 그들 부모의 직업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자녀들은 그들 부모들 중에 어느 한 쪽에 좀 더 많은 동일시를 하게 되며, 자녀의 직업가치관은 부모의 직업형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Goodale과 Hall(1976)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녀의 직업가치관이 부모들의 직업과 직접 관계되며 부모의 배경이나 태도와는 관련이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Kinnane과 Pable(1962)은 2개 고등학교로부터 121명의 11학년 여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가족 배경을 조사하여 가족의 영향이 직업가치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임언·정윤경·상경아(2001)에서 재인용).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아버지의 경제활동 못지않게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Wolfer와 Moe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자녀 사회화에 대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Kohn(1977)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어머니고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에 비교해서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사회계층별 자녀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Duvall과 Kohn이 주장한 것처럼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계층에 따라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자녀 사회화 자료를 사용해서 부모의 직업계층과 자녀양육방식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의 중2에서 고2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원래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할 때는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 등 모든 조사의 조건과 방법을 동일하게 하려 하였으나 시간과 조사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2006년 조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간 비교를 할 때 조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표집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은 전국의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교 2년생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표집된 중고등학교로부터 집단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조사는 동경의 고등학생들을 주민표로부터 임의추출하여 방문유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스웨덴은 전국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은

베를린 내 김나지움과 종합학교 각각 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당초 두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섭외에 실패하여 전국 중고생을 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표집과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 비교연구 I』 보고서를 참조하라(김현철·김은정 외, 2006).

1. 변수의 설정과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또는 자녀양육행동)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6년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자료에는 부모-자녀관계의 성격을 29개의 문항들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문항들 중 아버지-자녀관계와 어머니-자녀관계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해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측정하였다. 29개의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크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민주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거나, 자녀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거나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강압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상담적 양육’으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와 성적문제, 교우문제, 이성관계, 선생님과의 문제 등에 대해 상의하거나 상담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자료에 동일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추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2개의 요인이 분명하게 추출되었다. 따라서 국가비교연구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표 1〉 참조).

<표 1> 5개국 자녀양육방식 관한 요인분석

	문항	component		공통성
		1	2	
민 주 적 양 육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71		.605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92		.576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27		.597
	아버지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68		.593
	아버지는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96		.638
	아버지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800		.643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725		.532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728		.535
	아버지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737		.576
	아버지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724		.527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724		.598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609		.442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647		.445
	강 압 적 양 육	아버지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734
아버지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다			.745	.560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448	.201
아버지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772	.616
아버지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818	.705
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702	.503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41	.414
고유치(Eigen Value)		7.708	3.145	
민 주 적 양 육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20		.531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58		.504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15		.567
	어머니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54		.574
	어머니는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48		.567
	어머니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793		.632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715		.514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706		.502
	어머니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711		.525
	어머니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702		.495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66		.501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552		.360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642		.423
	강 압 적 양 육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752
어머니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다			.767	.596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483	.249
어머니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762	.589
어머니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827	.706
어머니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685	.486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582	.339
고유치(Eigen Value)		7.121	3.114	

민주적 양육방식을 변수로 만들기 위해 민주적 양육과 관련되는 13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측정하였고, 한국 아버지의 경우 13개 문항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9로 신뢰도 수준이 매우 높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강압적 양육방식은 강압적 양육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측정하였고, 한국 아버지의 7개 문항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8로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두 변수의 척도가능성 수준이 높았다. 어머니의 민주적 자녀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 변수의 척도가능성 수준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계층이다. 직업계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한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하여 이론적으로 총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료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모두 18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분류만으로는 직업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는 직업에는 부장으로부터 평사원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는데 이런 직급 차이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따라서 직업지위에 학력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기초하여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해서 직업계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우선 직업 종류는 교수, 교사, 회사원, 공무원, 사업가, 의료인, 연구원, 경찰, 군인, 성직자, 법조인, 방송인, 예술가, 스포츠인, 연예인을 '정신노동직업'으로 묶었다. 그 외 직업은 기능·노동직은 '육체노동직업'으로 리코딩하였고, '자영업'과 '기타'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직업 구분은 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력수준은 전문대(2,3년제) 이하의 학력과 대졸 이상(4년제)의 학력을 양분하였다. 직업구분과 학력수준을 결합하여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상위육체노동', '하위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상위정신노동'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정신노동'은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다양한 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상위육체노동'과 '하위육체노동'은 각각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서 다양한 육체노동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는 '상위육체노동직업'에 속하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국가간 비교 목적으로 '상위육체노동'과 '하위육체노동'을 합쳐서 '육체노동'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

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 직업계층 분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주부’라는 별도의 범주를 포함하여 6개의 직업계층 분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독립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성적, 아버지(어머니)가 친아버지(친어머니)인지 양아버지(양어머니)인지의 구분을 포함하였다.

<표 2> 직업계층 분류

구 분		아버지 직업			
		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
대학 교육 여부	대졸	상위정신노동	상위육체노동	자영업	기타
	전문대졸 이하	하위정신노동	하위육체노동		

2. 연구가설

앞장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상위정신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어머니)는 육체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어머니)에 비교해서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반대로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부모의 성별도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교해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예측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위가설 1-1: 상위정신노동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높으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낮다.

하위가설 1-2: 육체노동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으

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다.

가설 2: 국가별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있다.

하위가설 2-1: 미국, 독일, 스웨덴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 수준은 높으나 강압적 양육수준은 낮다.

가설 3: 직업계층별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하위가설 3-1: 미국, 독일, 스웨덴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서 직업계층별 차이가 더 크다.

가설 4: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민주적 양육수준은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다.

분석방법은 첫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서 국가별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비교하고 어느 직업계층간에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증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둘째, 자녀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미치는 지를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한다.

IV. 분석 결과

1.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민주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본(2.88) < 한국(2.93) < 스웨덴(3.15) < 미국(3.21) < 독일(3.27)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보통 이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F-ratio=28.75,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일본이 가장 낮고 독일이 가장 높았다. 연구가설 2에서 예측했듯이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당간 사후검증 결과 한국·일본, 미국·스웨덴, 독일이 세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독일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위정신노동·자영업 > 하위정신노동·육체노동 > 기타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상위정신노동직업·자영업 > 하위정신노동·기타 > 육체노동의 기타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크지가 않아서 당간 사후검증 결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직업계층별로 구분하면 상위정신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스웨덴(1.38) < 독일(1.38) < 일본(1.43) < 한국(1.57) < 미국(1.58)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그다지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양육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32.30,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일본이 가장 낮고 미국이 가장 높았다. 당간 사후검증 결과 스웨덴·독일·일본이 한국·미국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2에서 예측한 것과 반은 일치하고 나머지 반은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2와는 달리 일본이 강압적 양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미국이 높게 나타났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강압적 양육방식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크지만 직업계층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계층별 차이는 강압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주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난다. 한국, 미국, 독일에서 직업계층

별 민주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직업계층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상위정신노동	2.93 (986)	1.58 (991)	2.88 (216)	1.39 (217)	3.21 (407)	1.53 (407)	3.27 (61)	1.31 (60)	3.15 (47)	1.36 (49)
하위정신노동	2.84 (735)	1.56 (746)	2.73 (108)	1.44 (111)	3.06 (304)	1.56 (304)	3.30 (169)	1.37 (179)	3.05 (64)	1.42 (68)
육체노동	2.84 (308)	1.54 (319)	2.66 (28)	1.46 (28)	2.89 (298)	1.64 (298)	3.16 (27)	1.52 (28)	3.05 (25)	1.23 (27)
자영업	2.91 (776)	1.55 (792)	2.78 (63)	1.55 (63)	3.16 (202)	1.52 (202)	3.06 (40)	1.37 (41)	3.00 (57)	1.34 (62)
기타	2.78 (286)	1.62 (286)	3.34 (4)	1.14 (4)	3.01 (375)	1.61 (375)	3.05 (29)	1.49 (30)	3.01 (166)	1.41 (168)
전체	2.88 (3091)	1.57 (3134)	2.82 (419)	1.43 (423)	3.07 (1586)	1.58 (1586)	3.23 (326)	1.38 (338)	3.04 (359)	1.38 (374)
F-ratio	5.87*	1.79	2.33	1.83	8.37*	1.93	2.55*	1.57	0.67	1.52

주 : 1. 괄호안의 수는 사례수임.
 2. 일본의 경우 '기타' 직업 사례수가 4에 불과하여 일원변량분석에서 F-ratio 계산시 '기타' 직업 사례를 제외함.
 3. *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

앞에서 실시한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계층 변수로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 변수와 국가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공변량분석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 성적(① 상 ~ ⑤ 하의 5점 척도),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여부이다.

분석 결과 성별 효과는 민주적 양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적, 친아버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민주적 양육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어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97.177(a)	23	8.573	22.275	.000
절편	1326.174	1	1326.174	3445.741	.000
성별(1=남자, 2=여자)	.445	1	.445	1.155	.283
성적	20.805	4	5.201	13.514	.000
연령	11.017	9	1.224	3.181	.001
친아버지여부(1=친아버지)	58.845	1	58.845	152.894	.000
직업계층	11.850	4	2.963	7.697	.000
국가	67.546	4	16.887	43.875	.000
오차	2192.239	5696	.385		
합계	52387.331	5720			
수정 합계	2389.416	5719			

R 제곱 = .083 (수정된 R 제곱 = .079)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되지
 만 연령과 친아버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압적 양육수준에 관한 연구가설 1은 기각되고 연구가설 2는 지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55.095(a)	23	2.395	8.352	.000
절편	353.008	1	353.008	1230.840	.000
성별(1=남자, 2=여자)	9.458	1	9.458	32.978	.000
성적	11.184	4	2.796	9.749	.000
연령	3.384	9	.376	1.311	.225
친아버지여부(1=친아버지)	.021	1	.021	.072	.789
직업계층	1.903	4	.476	1.659	.157
국가	19.838	4	4.960	17.292	.000
오차	1654.276	5768	.287		
합계	15420.714	5792			
수정 합계	1709.370	5791			

R 제곱 = .032 (수정된 R 제곱 = .028)

2. 어머니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3.10) < 일본(3.15) < 스웨덴(3.18) < 독일(3.43) < 미국(3.49)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 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보통 이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184.29, 자유도=4, p-value=0.000)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에서의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비교할 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서 국가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가설 2에서 예측했듯이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덩칸 사후검증 결과 한국·일본, 스웨덴, 독일·미국이 3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직업계층별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독일에서만 직업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위정신노동 > 가정주부 > 그 외의 직업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자영업 > 상위정신·하위정신노동 > 그 외의 직업의 순서로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자영업이 다른 직업계층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이 구별되게 낮았다. 이런 결과를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위정신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느 직업계층이 자녀를 특별히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비교하면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보다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은 2.88인데 비해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은 3.10이다. 5개국 중 아버지-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이 113% 높다.

<표 6>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수준 차이(평균값)

직업계층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민주적	강압적
상위정신노동	3.17 (303)	1.55 (307)	3.13 (57)	1.38 (57)	3.53 (404)	1.51 (404)	3.36 (43)	1.35 (41)	3.19 (78)	1.38 (81)
하위정신노동	3.08 (434)	1.53 (436)	3.13 (181)	1.43 (186)	3.52 (329)	1.56 (329)	3.50 (168)	1.40 (178)	3.18 (180)	1.36 (188)
육체노동	3.05 (113)	1.58 (116)	3.24 (25)	1.45 (25)	3.37 (51)	1.68 (51)	-	-	-	-
자영업	3.09 (590)	1.51 (600)	-	-	3.66 (123)	1.44 (123)	3.13 (31)	1.42 (31)	3.31 (26)	1.33 (27)
기타	3.02 (425)	1.56 (436)	-	-	3.45 (382)	1.48 (382)	3.40 (57)	1.62 (62)	3.19 (93)	1.30 (96)
주부	3.12 (1557)	1.56 (1568)	3.16 (143)	1.39 (148)	3.45 (582)	1.59 (582)	3.48 (80)	1.34 (82)	3.04 (30)	1.45 (32)
전체	3.10 (3422)	1.55 (3463)	3.15 (406)	1.41 (416)	3.49 (1871)	1.54 (1871)	3.43 (379)	1.42 (394)	3.18 (407)	1.35 (424)
F-ratio	5.87*	1.17	0.42	0.49	5.11*	0.79	2.55*	1.57	0.67	1.52

주 : 1. 괄호안의 수는 사례수임.
 2. 일본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는 1명에 불과하여 일원변량분석에서 자영업 종사자를 제외함.
 3. *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

강압적 양육수준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스웨덴(1.35) < 일본(1.41) < 독일(1.42) < 미국(1.54) < 한국(1.55)의 순서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2.5점이 '보통'이기 때문에 5개국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그다지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양육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압적 양육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ratio=21.80, 자유도=4, p-value=0.000)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민주적 양육수준에서의 국가별 차이(F-ratio = 184.29)와 비교해서 작았다. 당간 사후검증 결과 스웨덴, 독일·일본, 미국·한국이 3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강압적 양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강압적 양육방식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어도 직업계층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수준을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수준과 비교하면 독일을 제외한 4개국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덜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

는 대체로 0.02~0.04 포인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강압적 양육수준에 관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머니의 양육수준에 미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자녀의 성별, 연령, 학교 성적(① 상 ~ ⑤ 하의 5점 척도),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여부이다.

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이는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수준과 연관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에 비교해서 딸을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의 연령, 성적, 친어머니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관심이 되는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연구가설 1과 2는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321,131(a)	24	13,380	48,894	.00
절편	1428,790	1	1428,790	5221,034	.00
성별(1=남자, 2=여자)	22,001	1	22,001	80,395	.00
성적	26,286	4	6,572	24,014	.00
연령	6,495	9	.722	2,637	.01
친어머니여부(1=친어머니)	46,932	1	46,932	171,496	.00
직업계층	2,926	5	.585	2,139	.05
국가	131,776	4	32,944	120,382	.00
오차	1748,416	6389	.274		
합계	69662,397	6414			
수정 합계	2069,547	6413			

R 제곱 = .155 (수정된 R 제곱 = .152)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통제변수인 성적, 연령, 친어머니 여부는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민주적 양육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직업계층과 국가 변수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수준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제3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52,930(a)	24	2,205	7.778	.00
절편	359,929	1	359,929	1269,413	.00
성별(1=남자, 2=여자)	.326	1	.326	1,151	.28
성적	11,850	4	2,962	10,448	.00
연령	7,623	9	.847	2,987	.00
친어머니여부(1=친어머니)	4,854	1	4,854	17,120	.00
직업계층	3,191	5	.638	2,251	.04
국가	13,388	4	3,347	11,804	.00
오차	1832,803	6464	.284		
합계	16916,612	6489			
수정 합계	1885,733	6488			

R 제곱 = .028 (수정된 R 제곱 = .024)

부모의 양육수준에 관한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국가에서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교해서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계층별 차이는 강압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주적인 양육수준에서는 나타난다. 한국, 미국, 독일에서 직업계층별 민주적 양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위정신노동자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직업계층이 자녀양육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 직업계층이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심리적 요인과 기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계층과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별히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부모의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직업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어머니의 직업계층별로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성역할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녀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부모의 성별 차이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직업계층을 직업 종류와 학력 수준을 결합하여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 직업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자녀 양육방식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29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두 개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각각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으로 조작화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 직업계층과 국가별로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 직업계층별로 상위정신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그 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 독일, 스웨덴이 민주적 양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강압적 양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직업계층별로 차이가 없지만 국가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독일·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보다 강압적 양육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계층과 자녀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직업계층에 속

하는 어머니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자녀를 민주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국가별 차이는 나타나는데 한국의 어머니는 다른 4개국의 어머니에 비교해서 민주적 양육수준이 낮고 강압적 양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어머니는 5개국 중에서 민주적 양육수준과 강압적 양육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변수조작화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석상에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자녀사회화 자료는 원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하지 못했다. 또한 몇몇 주요 변수들에서는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간 차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직업계층을 변수로 조작화하는데 있어서 직업지위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서 부득이 학업 수준과 직업 종류를 결합해서 상위정신노동, 하위정신노동, 육체노동, 자영업, 기타의 5개의 범주로 직업계층을 분류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졸 학력을 갖고도 현재 직업에서 전문직 또는 고위 관리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졸 학력을 갖고도 기능·노동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대졸 학력을 갖고서 기능·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적기는 했지만 본 연구의 직업계층 분류가 명확하게 직업지위와 직업특성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정교화하는 한편 부모의 직업계층, 자녀양육방식,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 학업성취들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 양육방식 외에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자녀의 성역할 의식, 사회의식, 자아정체감과 같은 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 의지,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 직업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층 지위가 자녀에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2004).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2001-2002)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2권, pp.5~32
- 구해근·홍두승(2001). 사회계층·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1호, pp.21~40
-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제8권, pp.83~103
- 김종한(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제39권 제4호, pp.349~366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호, pp.109~142
- 김현철·김은정 외(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춘호(2004). 교육과 불평등. 방하남 외,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서울: 한울, pp. 54~100
- 문은식·김중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학연구 제17권 제2호, pp.271~288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pp.1~30
- _____(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pp.193~224
- _____(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권 제4호, pp.31~66
- 방하남 외(2004). 한국사회의 가족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방하남 외,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서울: 한울, pp.19~53
-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직업가치관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1998). 부모의 자율성증진행동과 청소년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상담 연구* 제8권, pp.133~150
- 장상수(2005).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9권 제4호, pp.198~230
-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8권 제1호, pp.51~77
- 통계청(2006). 2005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 Bro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ose Vasta(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pp.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95~120
- Grolnick, W. S. and Slowiaczek, M. L.(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Vol. 65 No. 1, pp.237~252
- Ho, S. E. and Willms, J. D.(1996).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April, pp.126~141
- Haller, A. O. and Portes, A.(1973). Status attainment process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46 No. 1, pp.51~91
- Kohn, M. L.(1959).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4 No. 4, pp.337~351
- _____(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8 No. 4, pp.471~480
- _____(1971). Bureaucratic man: A portrait and an interpre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No. 3, pp. 461~474
- _____(1976).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Another confirmation of the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1 No. 3, pp.538~545
- Kohn, M. L. and Schooler, C.(1969). Class, occupation, and orien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5, pp.659~678
- _____(1973). Occupa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assessment

- of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No. 1, pp.97~118
- _____(1978). The reciprocal effects of the substantive complexity of work and intellectual flexibility: A longitudinal assess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No. 1, pp.24~52
- Ku, I. and Plotnick, R.(2003). Do children from welfare families obtain less education?, *Demography*, Vol. 40 No. 1, pp.151~170
- Maccoby. 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re, R.(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72~87
- Miller, J., Schooler, C., Kohn, M. L., and Miller, K. A.(1979). Women and work: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occupational condi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5 No. 1, pp.66~94
- Mortimer, J. T.(1996).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achievement. In A. C. Kerckhoff(Ed.),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Westview Press.
- Sewell, W. H., Haller, O., and Portes A.(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1, pp.82~92
- Sewell, W. H., Haller, O., and Ohlendorf, W.(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A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5 No. 6, pp.1014~1027
- Sewell, W. H., and Hauser, R. M.(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and Darling, N.(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Vol. 63 No. 5, pp.1266~1281
- Casanova, P., García-Linares, C., Torre, de la M., and Carpio, de la V.(2005). Influence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students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4, pp.423~435

ABSTRAC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enting Styles of Occupational Classes

Yoon, In-Jin* · Lim, Chang-Kyu* · Jung, Jae-Young*

We examined if parents of different social classes socialize their children differently by using data from the 2006 Survey on Youth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conducted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by th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arenting styles among occupational classes of fathers and nations. Fathers engaging in upper mental work were more likely to socialize their children in democratic styles than fathers of other occupational class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ed that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were more likely than their counterparts in South Korea and Japan to socialize their children in democratic styles. Second, occupational classes of mothers were not as clearly and consistently related with parenting styles as occupational classes of fathers, al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national differences: mothers of South Korea were the least likely to socialize their children in democratic styles whereas mothers of the United States were the most likely to socialize their children in democratic styles.

Key Words : child socialization, parenting styles, parent-children relationship, occupational class

투고일 : 7월 30일, 심사일 :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10월 24일

*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